

# “여수 소상공인 ‘따뜻한 동반자’ 되겠다”

### 여수세무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기극복 지원·민생경제 안정’ 협약 세금 관련 애로사항 등 해결방안 모색 전통시장 장보기도...“네트워크 가동”

“여수 지역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보듬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세무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3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여수세무서는 전남 세무서 서장실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여수센터와 ‘여수지역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여수 경제의 큰 축인 석유화학



여수세무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수센터는 지난 2일 여수세무서 서장실에서 ‘여수지역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 및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산업의 장기 침체와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골목상권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먼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 관련 애로·고충과

건의사항을 상시 수집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창업자부터 경영 악화로 재창업이나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까지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제도와 복잡한

각종 신고·접수 기간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 기관 임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위축된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도 앞장서기로 했다.

김훈 여수세무서장은 “현재 여수 지역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현장에서 보기에 매우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실질적인 세정 지원과 맞춤형 제도 안내를 통해 민생경제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김용덕 소진공 여수센터장은 “여수 지역 산업 위기로 인해 지역경제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와 가계대출 증가, 폐업 확산 등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제도 홍보와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세무서와 소진공 여수센터는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 소통창구와 네트워크를 가동할 예정이다. /박은성기자



## 광주국제협력단, 청소년들에 ‘꿈자람 장학금’ 전달

(사)광주국제협력단은 “최근 공산국가속에서 (재)흥성장학회가 후원한 ‘꿈자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꿈자람 장학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과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58명에게 누적 6천6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금은 교유비와 학습 기자재 구입 등에 활용되며 학생들의 학업 향상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장학생과 보호자, 흥성장학

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장흥 흥성장학회 이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장학금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경표 광주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장학금 지원이 청소년들의 학업 지속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옥근기자



## 적십자, 광주여대서 CPR 교육·헌혈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최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과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이번 캠페인은 광주여자대학교 청소년적십자(RCY) 지도교수인 박종렬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비롯해 경찰행정학과 교수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추진됐으며 광주여대 학생 20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에서는 생명존중과 나눔의 가치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과 헌혈 캠페인 참여를 수업 과제와 연계했다.

박종렬 교수는 “학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학생들이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나눔을 실천하면서 몸소 느껴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연상기자

## 전종호 광주전남병무청장 ‘청렴실천’ 챌린지 동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3일 “전날 전종호 청장이 ‘청렴실천다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청렴실천다짐 릴레이 챌린지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청렴 실천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홍소영 병무청장을 시작으로 산하 18개 기관장이 매주 번갈아가며 참여하고 있다.

전종호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청렴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일상 속 실천을 이어가며 더욱 청렴한 병무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재영기자



## 광주 북구청 국가대표 활약 ‘아·오세아니아 검도’ 銀

광주 북구청 검도부 소속 조관현·김현영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한 검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북구는 3일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검도선수권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이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검도 지면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몽골, 호주, 뉴질랜드 등 23개국 270여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조관현·김현영 선수는 대



표팀과 함께 몽골, 카자흐스탄, 태국을 잇따라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는 검도 중추국인 일본과 맞붙어 선전했지만 4-0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윤천웅기자

## 영광군-경찰, 범죄 예방 CCTV 확충 ‘맞손’

영광군은 “최근 영광경찰서에서 ‘2026년 제2차 자치경찰실무협의회’를 열고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 선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주관 치안 인프라 설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총 1억5천만원(도비 4천500만원·군비 1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된다.

협의회에서 경찰은 범죄 취약 구역과 112 신고 다발 지역 등 17곳을 1순위 후보지로 제안했다.

양 기관은 범죄 예방 효과성과 현장 여건, 예산 규모 등을 다각도로 꼼꼼하게 검토해 대상지 선정 방향을 조율했다.

향후 합동 현장 실사와 추가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고 조속히 CCTV 시설



물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치안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 담양소방, 공동주택 소방훈련·안전교육

담양소방서는 “최근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관내 옥상 대피 불가·자동개폐장치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비상구·피난로 확보를 위한 소방 훈련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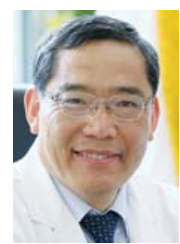
이번 훈련·교육은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화재 발생 시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아파트 구조별 특성을 고려한 피난시설 활용 대피 훈련 ▲세대별 대피경로 확보·화재 시 대피행동 요령 교육 ▲가족의 안전을 위한 ‘우리집 대피계획 세우기’ 연계 추진 ▲관리소장·소방안전관리자 대상 안전교육·방화시설 표시 강화 등이다. /담양=정승규기자



이중회 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상시 피난로 확보가 중요하다”며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비상구 확보 등 소방·방화시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규기자

## 엑소피아 ‘피 검사로 주요 암 동시 진단’



윤택림(사진) 전남대 의대 명예교수가 창업한 암 조기 진단 전문 바이오기업 ㈜엑소피아가 혈액만으로 주요 암을 동시에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3일 엑소피아에 따르면 일본 도쿄 의과대학 오치야 다카히로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혈액 기반 다중 암 조기진단 기술’을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엑소좀’이라 불리는 혈액 속 세포 외 소포체(extracellular vesicle)에 있는 단백질을 분석해 췌장·폐·유방·간·대장 등 주요 5개 암을 동시에 선별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엑소좀을 별도로 분리하는 과정 탓에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기존 방식보다 표적 단백질을 고감도로 정량 분석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이 기술을 활용한 암 진단 정확도는 약 94% 수준으로 단순한 진단에서 그치지 않고 암이 시작된 장기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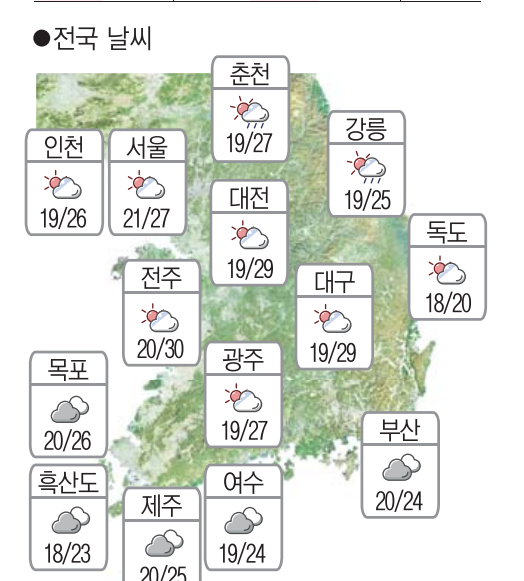
연구 결과는 최근 의학학 분야 학술지인 국제 분자 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에 게재됐으며 한일 두 교수를 공동 발명자로 관련 특허도 출원했다. /기수희기자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9 해질 19:43 🌙달돋이 23:02 달질 08:07

● 광주·전남 날씨

광주	구름조금	19/27	장성	구름조금	18/27
목포	흐림	20/26	보성	흐림	18/24
여수	흐림	19/24	함평	흐림	19/26
나주	구름조금	19/27	순천	흐림	19/26
완도	흐림	19/25	영광	구름조금	19/27
구례	구름조금	18/27	진도	흐림	18/25
강진	흐림	19/26	흑산도	흐림	18/23
해남	흐림	19/25	고흥	흐림	19/25
광양	흐림	19/26	담양	구름조금	18/27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부	면바다(북)	0.5-1.0	0.5-1.5
	면바다(남)	0.5-1.5	1.0-2.5
남해	앞바다	0.5-0.5	0.5-0.5
	면바다(동)	0.5-1.0	0.5-1.0
면바다(서)	0.5-1.0	1.0-2.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4:34	09:53	11:03	05:20	11:42	06:29
여수	16:20	21:37	23:44	17:01	---	17:52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 세차 70
여름 떠나요	세차하기 좋은날
🧤 빨래 70	🏸 운동 50
실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 주간 날씨

5일(금)	6일(토)	7일(일)
☀(19/26)	☀(16/29)	☁(17/28)
맑음	맑음	구름조금
8일(월)	9일(화)	10일(수)
☁(17/26)	☀(15/26)	☀(15/27)
구름조금	맑음	맑음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